

이병노 담양군수, 농산물 유통활성화 위한 서울 가락동 시장 방문

지역 고품질 농산물 유통 책임지는 도매법인과 간담회 실시 “면적 확대·기술·인력 지원 가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2월28일 새벽 담양 딸기 등 농산물의 주요 유통판로인 서울 가락동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해 유통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이 군수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작업형태와 유통현황을 일일이 비교하며 소비자 선호하는 유통의 실태를 살폈다. 이어 담양군, 군의회, 지역농협, 도매시장 출

하 딸기작목회원 60여명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농협가락공판장 등 주요 도매법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담양의 죽향, 메리퀸의 출하 물량 확대, 품질 격차를 줄이는 선별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노 군수는 현장에서 “담양 딸기는 비옥한 토질, 풍부한 일조량과 더불어 영산강 시원

의 청정한 자연환경 아래 재배돼 단단하고 향과 단맛이 뛰어나다”며 “죽향, 메리퀸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재배기술과 인력을 지원해 시장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367ha에서 13,206톤을 생산해 991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담양 자체개발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은 동남아와 미국 등에 수출하며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자리잡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동강대 협약서 기념 사진 : 화순군은 다문화가족·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화순군-동강대학교 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에서 구복규 화순군수(좌측 남성)와 이민숙(우측 여성) 동강대학교 총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화순군-동강대학교 상호협약 체결

다문화가족·취약계층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 상호협력

화순군은 2월27일 다문화가족·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화순군-동강대학교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순군과 동강대학교가 상호협력하여 다문화가족과 저소득 취약계층 구성원의 대학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과 저소득 취약계층 구성원에 대한 대학진학 및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진로준비·사회진출 지원 ▲(교육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교육정책 지원 ▲(고용노동부)고숙련 일학습병행 대학 교육정책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화순군과 동강대는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미래지능형 모빌리티, 미래친환경에너지, 호텔조리관광)에 대한 입시설명회 개최 등 체계적인 학업 및 진로 준비를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팀을 전국최초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 협약이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대학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업무 협약 체결

구례군은 2월28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일현)과 ‘구례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백일현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 쌀 판로 확대로 농민과 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관내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기농 친환경 쌀로 바뀌어 공급한다. 구례군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내 경로당 288개소에 연간2,378(20kg)포를 제공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내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증진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틀린 기차마을 찾기” 게임하러 오세요

섬진강기차마을 3월 달 이벤트 운영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3월 한 달간 주말 관광객을 대상으로 ‘틀린 기차마을 찾기’ 게임 이벤트를 운영한다. 매달 색다른 이벤트를 운영 중인 섬진강기차마을의 3월 이벤트 주제는 ‘기차마을 탐험해봄’이다. 봄을 맞이해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차마을을 곳곳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3월 이벤트의 핵심 프로그램은 ‘틀린 기차마을 찾기’ 게임이다. ‘틀린 기차마을 찾기’는 대중에게 친숙한 틀린그림찾기 게임을 기차마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벤트다. 단 순히 종이 속에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틀린부분을 찾아내는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뛰놀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게임에 활용할 미션카드를 행사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미션카드를

게임장소 4곳(소망정, 중국정원, 꼬마광장, 치치뿌놀이터)의 실제 모습이 변형된 사진으로 구성됐다. 게임 참가자는 게임 장소 4곳에 직접 가서 실제 모습을 보고 미션카드와 다른 부분을 5개씩 찾아 정답을 표시하면 된다. 틀린그림을 전부 찾으면 행사 부스에서 정답을 확인받고 완료 인증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정답이 아닐 경우 안내자에게 힌트를 받아 다시 게임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스탬프 4개를 전부 찍은 참가자는 즉석에서 상품을 직접 뽑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하던 ‘초코초코 모이기’ 이벤트는 3월 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13세 미만 어린이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기차마을 내 체험시설 3곳(꼬마기차, 4D영상관, VR체험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달콤한 수제초콜릿을 받을 수 있다. 3곳을 방문해 즐겁게 놀고, 초콜릿을 전부 모은 어린이는 추첨을 통해 별도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나주시, 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내일까지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 선착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3월부터 봄학기 평생학습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3월 13일부터 운영하는 ‘2023년 봄학기 평생학습’ 15개 강좌, 수강생 222명을 모집한다고 2월27일 밝혔다. 강좌는 캘리그래피·인전웃 만들기·라탄공예·섬유공예·성인중이집기·민화·손 그림 일러스트·토탈공예·프랑스자수·서예 등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평생학습으로 구성됐다. 혼자 티마스터, 생활일본어, 요가 등 생활·건강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3급·다육아트지도사2급 등 자격증 과정도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3월 3일까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강좌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 교재·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 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통해 시민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리며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힘써주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